

예술로 펼쳐낸 ‘인공지능·인간·다중우주’

2024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27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스튜디오 작업실 등서

인공지능과 인간, 다중우주라는 세 가지 주제 아래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펼쳐낸 결과물은 어떨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27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 스튜디오 작업실, 입체 영상 제작실, 입체 음향 제작실에서 ‘2024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를 연다. 올해 레지던시 국제공모에 선정된 총 8팀의 아트&테크놀로지 분야 크리에이터들은 지난 4개월간 다작적인 연구를 통해 완성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선보인다.



신피자카작 '인공지능-크리처-멀티버스'(사진 위)와 레이 엘시작 '미래를 위한, 미래의 아카이브'

한국·일본·중국·대만·미국·네덜란드·스페인·브라질 총 8개국 8팀 12명의 창·제작자가 선보이는 작품들은 모두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창·제작 플랫폼을 활용해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해 결과물이다.

쇼케이스에서는 게임엔진, 로보틱스, 인공지능, 혼합현실, 데이터 기술 등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복잡한 문제를 고민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나 볼 수 있다.

먼저 한국팀 ‘교각들’은 다소 강렬한 제목의 작품으로 관객들을 맞는다. 프로젝트 ‘미소녀는 수육受肉하지 않는 다’는 게임에서 흔히 보여지는 미소녀 도상에 주목한다. 비주얼 캐릭터 ‘미소녀’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상상력을 통해 ‘외형적 신체’와 화면상에 드러나는 안 될 ‘모델링의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본다.

크리에이터 하카손은 입고 걸치는 물리적 행위를 통해 신체와 공간의 관계를 정의한다. 그는 장에나 소수가 축복받고 포용되는 특별한 장소에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집인 ‘신체’를 탐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안한다. 웨어러블 로봇 ‘크립 바디’를 통해 상황과 장소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제시한다.

일본 작가 류타 아오키는 AI와의 협업을 통해 여론 조작의 잠재적 위험을 조망하는 작품 ‘시뮬레이션된 합의’를 선보이고 있다. 집단 의사결정과 관련해 그 중요성 그리고 기술 수행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도구로 사용할 때 생기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림 신피자카는 우리가 경험한 일

상을 기반으로 만든 메타 세상을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경험하게 한다. 작은 숲속을 연상시키는 방에 들어가 MR 기기를 착용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마치 가상 생명체가 만들어진 신비로운 다중우주에 저절로 몰입하게 된다.

미국 작가인 사이언 동주는 영상과 설치로 이뤄진 ‘잊혀질 권리’ 작품을 통해 감시에 익숙한 디지털 세상을 펼쳐보인다. 영상 속 사람들은 식사 중인데, 이는 여러 대 드론이 위에서 촬영한 모습이다. 모든 식사 장면을 하나하나 분석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인간의 망각 능력이 컴퓨터의 기억 능력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친다.

이밖에도 쇼케이스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비주의를 비판하는 스페이스 앤드의 ‘안녕, 월드 홀!’, 5·18민주화운동을 예로 들며 미래의 지식수집과 보존에 대해 상상하게 하는 레이 엘시의 프로젝트 ‘미래를 위한, 미래의 아카이브’, AI 기반 실시간 날씨 시물레이션과 금융 날씨 파생상품을 통해 경제 자산이 지구에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현상을 포착한 스카이 스크어스의 ‘기후 프리미엄’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강현 전당장은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창·제작자들이 지난 4개월간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ACC는 융복합 창·제작 플랫폼으로서 실현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픈스튜디오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고. /최명진 기자



‘경계의 시선_다국적 색채’ 전시 전경

모호한 경계, 그 너머를 보다

28일까지 나주작은미술관 ‘경계의 시선_다국적 색채’展

전통과 현대, 동·서양이 어우러진 다국적 작가들의 작품세계가 펼쳐진다.

오는 28일까지 나주 작은미술관(나주시 과원길5)에서 열리는 ‘경계의 시선_다국적 색채’다.

한국화의 정체성과 변화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이번 전시는 한국화가 전통에만 머물지 않고 시대와 환경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서는 레마(이탈리아), 목예림·왕사오난(중국), 유소연·전민주(한국) 5명 작가의 작품 37점을 소개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통 재료와 기법을 활용해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주의 전통적인 자연과 일상을 결합시켜 자신만의 예술적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다.

이탈리아에서의 예술적 경험과 한국 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결합한 레

마 작가부터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현실을 직감적으로 담아낸 목예림 작가, 치마의 곡선으로 자연과 여성의 본질적 관계에 대해 고민한 왕사오난 작가, 내면의 위안을 찾는 여정을 이야기하는 유소연 작가, 무색(無色)의 존재로 타인을 돋보이게 하는 힘을 보여주는 전민주 작가의 작품까지 다채롭다.

이와 함께 나주작은미술관에서는 첫 번째 국제 교류 전시도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폴란드 필립 작가 제안으로 마련된 ‘그단스크에서 온 그림 편지’ 전시다. 나주시 재생 공간에 폴란드 그단스크 학생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로 디지털 페인팅, 사진, 회화 등 40여점을 선별해 디지털 프린팅으로 선보인다. 낯선 도시에서 날아온 작은 손길에 화답하는 의미를 지니는 이번 전시는 그동안 나주시가 보여준 다양한 문화활동의 결과물로 펼쳐질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과 광주의 인문학적 도시재생’

‘2024 지원포럼’ 7인7색7분스피치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광주의 인문학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행사가 마련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광주 인문학적 도시재생’을 주제로 제3회 7인7색7분스피치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전고필 영암문화재단 대표이사, 정명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장, 백형주 도시문화공작소 인유

대표, 정경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이한호(주)쥬스컴퍼니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광주의 인문학적 도시재생에 대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광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계기를 모색할 예정이다.

류재한 지원포럼 회장은 “이번 7인7색 7분 스피치는 오월의 문화 유산을 정신적 유산의 도시재생으로 바라볼으로써 광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다섯손가락’ 이두현과 미디어아트 음악여행

내일 이이남스튜디오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과 다섯손가락 이두현(사진)의 만남’

동양적 작품과 원숙한 감성의 노래가 조화를 이루는 콜라보 전시가 오는 27일 오후 7시 이이남스튜디오에서 펼쳐진다.

국대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활발

한 활동을 펼쳐온 이이남 작가는 이날 가수 이두현의 공연을 미디어아트로 옮겨 펼쳐 보이며 이색적인 전시 경험을 선사한다.

가수 이두현은 1980년대 락그룹 ‘다섯손가락’을 이끈 리더다.

이날 이이남스튜디오에서 ‘새벽기차’, ‘수요일엔 빨간 장미’, ‘풍선’, ‘고흐의 귀’ 등 시대를 풍미한 명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이남 작가는 콜라보 전시에서 동양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기운생동, 마치 살아있는 듯한 기운을 증시했던 동양의 고전회화와 대중에게 익숙한 명화 작품을 사용해 일상의 소재, 이슈 등을 컨셉화시킴으로써 과거와 연결된 현대적인 미디어아트를 보여준다.

이이남스튜디오 관계자는 “두 예술



가가 콜라보한 예술적 감성은 세대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예술 전시로 펼쳐질 예정”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시 관람의 목적에서 나아가 공연, 세미나, 문화예술행사 등을 아우르는 이색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